광주 휘발유값 1300원대 주유소 등장

유류세 인하 한달만에…1683원서 200원 넘게 하락
전남 평균가격 1480원…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종범(31·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는 출근 길 새삼스레 놀랐다. 광산구 평동 일대 도로변 주유소들이 내건 가격표에 휘발유 값이 1359원부터 1375원 등 13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1600원 후반까지 치솟던 기름 값이 불과 한달 만에 3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퇴근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 봐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다"며 "막상 한달이 지나고 보니 ℓ당 200원이 넘게 줄어들면서 확실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지 한달 만에 광주에서 1300원대 주유소가 나오기 시작했다. 멈출 줄 모르고 1700원 턱밑까지 오르던 휘발유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51.18원으로, 광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51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7일(1451.01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5일 1683.10원에 비해서는 231.92원이나 떨어진 것으로, 이는 일반 중형자동차가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때 70ℓ가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1회 주유시 1만6235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재 주유소 평균 가격은 ℓ당 1343.21원으로 지난달 5일 1486.30원보다 143.09원 떨어졌다.

특히,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겹치면서 광주에서는 휘발유를 1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덩달아 자동차용 경유 역시 12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눈에 띈다.

광산구의 경우 평동의 평동제일주유소를 비롯한 23개 주유소가 휘발유를 1300원대에 판매하고 있으며, 1200원대 자용차용 경유를 판매하는 곳도 9곳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반디석유시청점을 포함한 5개 주유소가 휘발유를 1300원대, 경유 1200원대에 판매 중이다. 남구와 북구, 동구는 아직 휘발유 1300원대 주유소가 없었다.

반면, 전남지역은 기름 값 하락속도가 광주에 비해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남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1480.50원으로, 지난달 5일 1680.26원보다 199.76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광주가 231.92원이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적다. 경유도 같은 기간 1484.78원에서 1362.02원으로 122.76원 하락해 광주 143.09원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더뎠다.

지역별 변차가 있지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름 값 하락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과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다. 통상 정유사들이 현재의 국제유가를 참고해 다음 주 출고가를 결정하고, 해당 출고가가 적용된 기름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기간이 총 2~3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1~2주는 소비자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며 "국제유가 하락에 유류세 인하까지 더해져 기름값 인하 체감 효과가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8.69 (-32.62)	↓ 금리 (국고채 3년)	1.84 (-0.06)
↓ 코스닥	678.38 (-22.74)	↑ 환율 (USD)	1120.30 (+6.20)

금호타이어 특별 할인 6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앞 주차장에서 금호타이어 특별할인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및 우리지역 제품 사용하기 일환으로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8일까지 진행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아카데미 회원 최대 42% 할인

광주신세계 25일까지 대축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신세계 아카데미 수강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회원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월 평균 7회가량의 높은 방문횟수를 기록한 아카데미 수강생의 선호 장르와 강의와 연관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아동과 F&B(식음료), 여성패션 부문에 대한 할인 및 특가 상품을 준비했다.

최대 42% 할인을 제공하는 아동부문 특가행사 대표상품으로는 '블루독베이비'의 고슴도치 패딩이 11만8800원, '블랙야크키즈'의 카르다운재킷 19만5300원, '노스페이스키즈'의 안타틱 다운파카 19만400원, 맥머도 캠프 다운파카 20만6400원 등이다.

지하 1층 델리매장에서는 '캐비지'의 따뜻한 과일음료 전 품목을 30%, 젤라뚜또의 음료 전 품목을 10% 할인, '고래사어묵'의 어묵면 4개 세트(3종)을 2만4000원, '고엔'의 고로케 4개 세트를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패션장르에서는 'CC콜렉트'와 '시에로'가 7일부터 9일까지 수강생을 위한 '브랜드 데이'를 열고 각각 20%, 10% 할인을 제공한다. 7일부터 25일까지 '쥬크'는 30만원 이상 구매시 3만원의 금액 할인을, 'H커넥트'는 5·10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1만원 할인, '안다르'는 5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송종욱(왼쪽에서 다섯번째) 광주은행장이 제6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경영우수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취임 후 광주은행을 영업자산 4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 지역인재 채용과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은행 제공〉

송종욱 광주은행장 광주상공대상 경영부문 대상

지역 대표은행 자리매김·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이 지난 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경영우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경영우수·고용우수·기술혁신·지역공헌·노사상생 부문에서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영우수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취임 이후 광주은행을 영업자산 4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또 지역인재 채용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수도권으로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며 수도권의 유동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공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향토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은행은 창립 50년 만에 자기자본 1조7000억원(자본금 2,566억원), 총자산 27조원(영업자산 40조원)으로 기초 체력이 튼튼한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으로 성장했으며, 2018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414억원, BIS자기자본비율 16.31%, 고정이하여신 0.51%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영업 이익을 지역과 함께 나누고, 지역민을 위한 지방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송종욱 은행장의 노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지역상생 경영을 필두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서민을 위한 금융상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앞장섰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청소년·청년 10명 중 4명 "중기 취업 의향 있다"

중기중앙회 설문 43.8% 답해
급여·복지·근무환경 중시

10~20대 청소년과 청년 10명 중 4명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29세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4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8.2%, "미정" 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은 38%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여성(48.2%)이 남성(39.3%)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취업에 호의를 보인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57.7%), 고등학교 재학(51.9%), 대학(원) 재학(42.1%), 대학(원)졸업(39.1%) 등의 분포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 이미지가 혼재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열악한 환경(29%)과 성장·발전(28.4%)이라는 응답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됐다. 이어 불안함·어려움(23.4%), 도전정신(7.8%), 자율·경쟁(5.4%), 보호와 육성·지원(3.0%) 순이었다.

이런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대상으로 응답자들은 뉴스 기사(66.2%), 교사·교수·동료(41.6%), SNS 게시물(40.6%), 가족(39.6%)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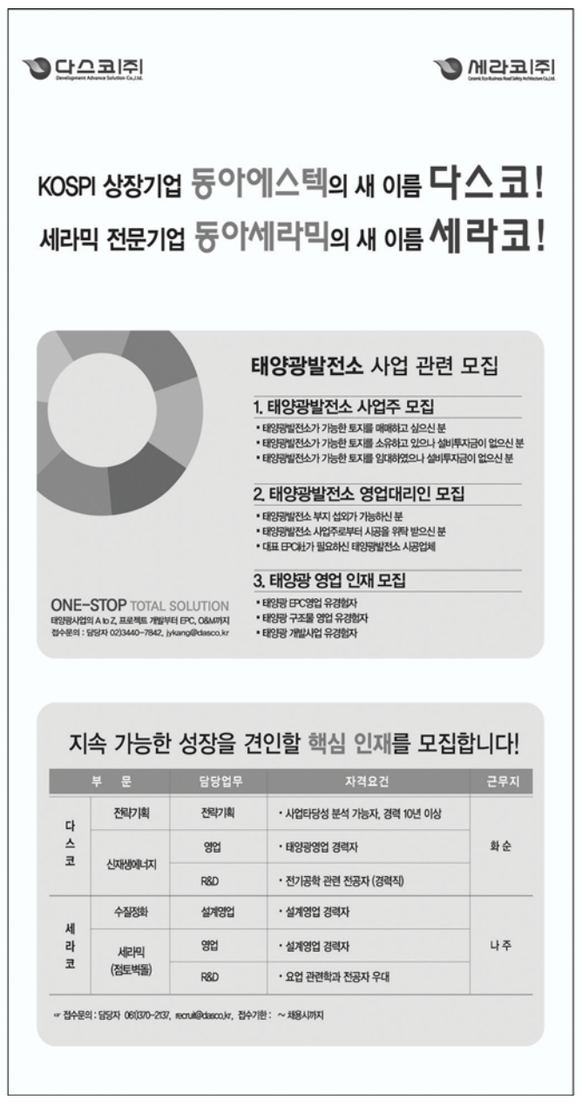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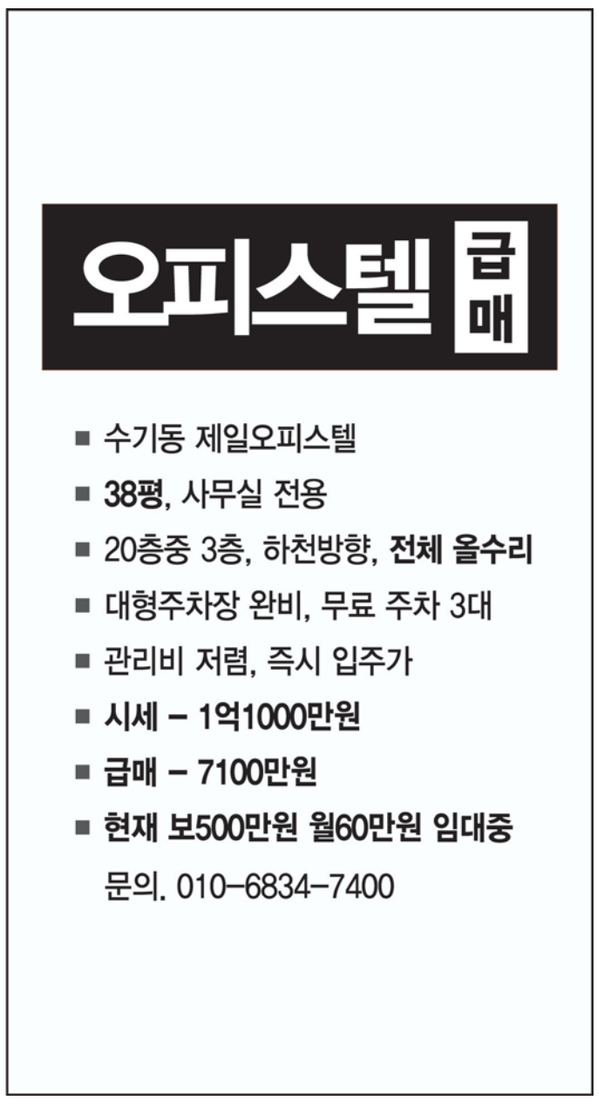
취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항목으로는 급여·복지 수준(48.3%), 근무환경·여건(26.1%)이 우선시됐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20.9%)보다 거주지 인근의 기업(62.9%)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기업의 소재지보다는 급여와 근무여건 등이 본인의 조건에 맞느냐를 따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역 채용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300곳 가운데 "최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답한 기업이 81.4%를 차지했고, 50% 미만으로 채용했다는 기업은 18.5%였다. 그 이유로는 '지역에 있는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서'(42.9%)가 우세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